

ESG 동향 뉴스 클리핑

이슈 검색 기간: 2025.10.17(금) ~ 2025.10.23(목)

제공일시 2025 10 31 Fri

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

문의 02 398 6432

ESG 동향 뉴스 클리핑

이슈 검색 기간: 2025.10.17(금) ~ 2025.10.23(목)

제공일시 2025 10 31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 문의 02 398 6432

글로벌 정책

1. 美·카타르, EU 환경규제법에 “러 대체 LNG 공급 위협” 경고

- 미국과 카타르가 유럽연합(EU)의 ‘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(CSDDD)’이 에너지 안보와 유럽 경제의 회복탄력성에 위협이 된다고 경고함
- 양국 에너지 장관은 EU 지도부에 공동 서한을 보내, 이번 규제가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대체해온 LNG 공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함
-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를 두고 주요 화석연료 수출국이 EU의 환경·인권 규제 강화에 반발하며 에너지 공급 관계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신호로 평가함

[\(아주경제 2025.10.22\)](#)

2. 中 2030년 풍력발전 용량, 한국 전체 발전량의 9배

- 중국이 2030년까지 풍력발전 누적 설치 용량을 1300GW(기가와트)로 확대하고, 2035년에는 2000GW 이상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함
- 베이징 국제 풍력 에너지 대회에서 발표된 ‘풍력발전 베이징 선언 2.0’에 따르면, 2026~2030년 동안 매년 120GW 이상, 해상풍력 15GW 이상 신규 설비를 설치할 계획임
- 이는 한국 전체 발전량의 약 9배 규모로, 중국의 재생에너지 산업 확장 전략의 핵심으로 평가됨

[\(뉴스핌 2025.10.21\)](#)

3. 유럽연합 탄소배출권 가격 통제 제도 도입, 한국도 속도 조절 들어가나

- 유럽연합(EU)이 산업계의 전기료 인상 우려를 반영해, 차기 기후대응 계획에서 배출권 가격 급등을 방지하는 통제 제도를 새로 도입함
- 새 제도는 2027년부터 시행 예정인 ‘EU 배출권거래제 2(EU-ETS2)’에 적용되며, 건물·수송·난방 부문을 포함해 기존보다 적용 범위를 확대함
- EU는 산업계와 회원국의 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 지원책도 마련하는 등 탄소중립 이행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분석됨

[\(비즈니스포스트 2025.10.21\)](#)

국내 정책

1. 이재명 정부 첫 에너지위원회 구성...기후·탄소중립 강화

- 이재명 정부가 에너지정책 기조를 기후와 탄소중립 중심으로 전환하며 제8기 에너지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있음
- 제8기 위원회는 정책 일반, 법률, 탄소중립, 효율, 기술, 전력, 재생에너지, 수소, 자원, 원전, 시민단체 등 11개 분야로 세분화됨
- 원전·전력 분야 비중이 줄고 기후·재생에너지 등 전환 분야 인사 비중이 확대되며, 환경 중심의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이 추진 중임

[\(에너지경제신문 2025.10.22\)](#)

2. 금감원,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평가 직접 수행 방침

-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“금융위원회가 권한을 이양하면 금감원이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평가를 직접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”고 밝힘
- 현재 한국에서는 금융감독 당국과 한국ESG기준원 모두 이행평가를 하지 않아 감독 공백이 존재함
- 금감원은 권한 이양 시 기관투자자 책임투자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·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임

[\(한국경제 2025.10.21\)](#)

3. 기후부 '그린워싱' 내로남불

-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그린워싱 판단 기준을 통합하는 '공동 가이드라인' 제정에 착수함
- 최근 5년간 기후부가 적발한 기업 그린워싱 사례가 1만3000건에 달하며, 경영계가 제재 중복을 우려하자 관리 기준 개편에 나선 것임
- 내년까지 제품 생산 단계별 주의사항, 용어 정의, 적용 범위를 통일해 기관 간 판단 기준을 일원화할 예정임

[\(세계일보 2025.10.21\)](#)

글로벌 기업

1. 머스크, 브라질산 에탄올 혼합 선박연료 첫 시험...해운 탈탄소화 본격화

- 덴마크 해운사 머스크가 브라질산 에탄올·메탄올·마린디젤을 혼합한 새로운 선박 연료의 실증 운항을 시작함. 이번 시험은 대체연료 중 하나인 메탄올의 공급 제약을 완화하고, 장거리 항로 운항에도 적용 가능한 연료 기술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임
- 머스크는 이번 시범운항을 통해 탄소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바이오연료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으며, 향후 상업 운항 확대를 위한 기술적 근거를 확보 중임

[\(임팩트온 2025.10.22\)](#)

2. 애플, 유럽서 650MW 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추진

- 애플이 유럽 전역에서 650MW 규모의 태양광·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청정에너지 투자 확대에 나섬. 이번 프로젝트는 그리스·이탈리아·라트비아·폴란드·루마니아 등지에서 진행되며, 총 6억달러(약 8300억원)가 투입됨
- 2030년까지 연간 100만MWh 이상의 청정전력을 생산해 애플의 글로벌 '탄소중립 2030' 목표를 직접 지원할 계획이며, 최근 스페인에서 가동을 시작한 발전소도 포함됨

[\(투데이에너지 2025.10.22\)](#)

3. 中 체리, 전고체 배터리 개발...美 시장 진입은 불투명

- 중국 자동차 제조사 체리가 리튬-망간 계열 양극재와 제자리 중합 고체 전해질 구조를 적용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함. 기존 전기차 배터리보다 주행거리를 두 배 이상 늘릴 수 있는 기술로, 중국 내 기술 자립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주목받고 있음
- 다만 중국의 배터리 수출 통제 조치로 인해 북미 시장 진출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, 향후 아시아·유럽 시장 중심의 기술 상용화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음

[\(디지털투데이 2025.10.22\)](#)

4. "희토류 탈중국 기회가 온다"...호주 최대기업, 한국에 500억원 투자

- 호주 광산기업 ASM이 약 50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오창 희토류 합금 공장 2단계 증설에 착수함. 이번 투자는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 전략의 일환으로,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됨
- 증설이 완료되면 2027년까지 네오디뮴 합금 연간 생산능력이 현재의 2배인 3600톤으로 확대될 예정이며, ASM은 향후 3단계 증설 가능성도 검토 중임

[\(매일경제 2025.10.21\)](#)

국내 기업

1. 고려아연, 친환경 에너지 사업 본격화...호주서 BESS·태양광 개발 승인

- 고려아연의 호주 자회사 아크에너지가 추진하는 리치몬드밸리 배터리 에너지저장시스템(BESS) 및 태양광발전소 프로젝트가 뉴사우스웨일스(NSW) 주정부의 개발계획 승인을 획득함. 이는 고려아연의 신성장 전략인 '트로이카 드라이브' 핵심 사업 중 하나로, 신재생에너지 부문이 본격적인 사업 궤도에 오른 것으로 평가됨
- 아크에너지는 이번 승인으로 2027년 하반기 상업운전을 목표로 공사 일정을 가속화할 예정이며, 향후 호주 내 그린수소 및 에너지저장 사업 확장도 추진 중임

[\(데이터숍 2025.10.22\)](#)

2. 에쓰오일, '9조 사힌 프로젝트' 결실 석유화학 신성장동력 마련

- 에쓰오일이 9조원 이상을 투입한 대형 석유화학 설비 '사힌 프로젝트'가 전체 공정을 85.2%를 기록하며 완공 단계에 진입함. 현대건설, 롯데건설, DL E&C 등 대형 건설사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 중임
-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이번 프로젝트는 글로벌 수요 둔화와 공급 과잉 속에서도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, 고부가 제품 중심의 사업 구조 전환을 이끌 것으로 기대됨

[\(블로터 2025.10.22\)](#)

3. GS퓨처스, '테슬라 파워월 엔지니어 설립' 가정용 배터리 美 스타트업 투자

- GS그룹의 벤처캐피털 GS퓨처스가 미국 가정용 배터리 스타트업 필라에너지에 400만달러(약 60억원) 규모의 시드 투자를 진행함. 이번 투자는 미국 내 급성장 중인 에너지저장시스템(ESS) 수요 확대를 겨냥한 전략임
- 필라에너지는 테슬라 파워월 출신 엔지니어가 설립했으며, 이번 투자 라운드에는 토요타벤처스와 리팩터캐피탈도 참여함. 확보한 자금으로 제품 개발과 상용화를 본격화할 계획임

[\(더구루 2025.10.22\)](#)

4. '한화큐셀·LG엔솔 협력' 美 아틀라스 BESS 준공

- 한화솔루션 큐셀부문과 LG에너지솔루션이 공동 추진한 미국 애리조나주 아틀라스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(BESS) 프로젝트의 준공이 완료됨. 이는 총 450MW/1800MWh 규모로, 현지 규제기관의 상업운전 허가를 이미 획득함
- 이번 사업은 한화큐셀 미국법인이 추진하는 대규모 에너지저장 인프라 확장 전략의 일환으로, 연말부터 가동을 시작하고 내년에는 추가 BESS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임

[\(더구루 2025.10.21\)](#)

Weekend ESG Insight

이슈 검색 기간: 2025.10.17(금) ~ 2025.10.23(목)

제공일시 2025 10 31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 문의 02 398 6432

영국, '그린잡 40만 개' 창출...청정에너지 인재 양성 돌입

- 영국 정부가 청정에너지 산업 확산에 맞춰 전국 단위 기술 인력 양성 계획을 발표했으며, 2030년까지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전환 부문 일자리를 86만 개로 확대할 방침임

- 산업전략의 일환으로 2028~29 회계연도까지 기술교육 예산을 연 12억파운드(약 2조2918억원) 증액하고, 향후 3년간 잉글랜드 지역 청정에너지 전문 인력 양성에 최소 1억파운드(약 1910억원)를 투입할 계획임

- 용접·배관·전기공학·목공 등 31개 직종을 인력난 예상 분야로 지정해 지역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며,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동부를 포함해 40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됨

- 청정에너지 기술 교육 강화를 위해 전국에 5개의 '테크니컬 엑셀런스 칼리지(Technical Excellence Colleges)'를 신설하고, 체셔·링컨셔·팸브로크셔 등 지역에 250만파운드(약 48억원) 규모의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함

- 석유·가스 산업 종사자 수천 명이 해상풍력·원자력 분야로 전환할 수 있도록 2000만파운드(약 382억원)를 투입해 '기술 여권(Skills Passport)' 제도를 확대하며, 기존 경력과 자격을 청정에너지 분야로 전환할 수 있게 지원함

- 청정에너지 일자리는 평균 임금이 전체 평균보다 23% 높으며, 중간 관리자급 이상은 연 5만파운드(약 9546만원) 이상을 받는 사례가 다수로, 지역 일자리 질 개선 효과가 기대됨

- 에드 밀리밴드 에너지장관은 "청정에너지 일자리 붐이 지역사회에 양질의 산업 일자리를 제공할 것"이라며 "이제는 생계를 위해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경계를 만들 것"이라고 강조함

- 영국 정부는 이번 청정에너지 인재 육성 계획을 통해 민간 부문 투자와 고용 확대도 병행한다는 방침임. 에너지 기업들의 참여도 확대되고 있음

- EDF 파워솔루션 영국법인 CEO 매튜 휴는 "이번 계획은 전기화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명확한 기회를 제시한다"며 2035년까지 현재의 5배 규모인 10GW 이상의 청정에너지 설비 확보 계획을 밝혔음

([임팩트온 2025.10.22](#))